

욥기

세션 22: 하나님의 말씀 2, 베헤못과 리워야단

그리고 욥의 응답(욥 40.6-41.34)

존 월튼

이것은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하나님의 말씀 2, 베헤못과 리워야단, 욥의 응답, 욥기 40:6-41:34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개 2 [00:31-1:12]

이제 우리는 마침내 야훼의 두 번째 연설에 이르렀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얻기 위해 인간의 무지를 넘어 움직일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가장 혼란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온 책의 일부에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손을 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약간의 재미를 가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1:12-2:31]

한 번 보자. 4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두 번째 말씀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언급하지 않았다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로힘이

아닙니다. 샤다이가 아닙니다. 아도나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프롤로그에 야훼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야훼 연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느낌을 줍니다. 욥은 엘 샤다이에 대해 말했지만, 밝히려 오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에게 보낸 이 연설에서 그의 처음 몇 줄을 읽습니다. 물론 질문을 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야훼의 침묵을 다루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대답하러 오지 않으십니다. 그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모든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말하자면 탁자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욥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은 욥 [2:31-4:37]

8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내 공의를 깎아내리시겠습니까? 자신을 정당화하라고 저를 정죄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욥의 연설에서 명확하지 않았다면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평판을 공정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욥은 일어난 모든

일에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느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욥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팔과 같은 팔을 가졌느냐 네 음성이 그의 우뢰와 같을 수 있느냐 영광과 영화로 스스로 단장하며 존귀와 위엄을 입었으니 분노의 분노를 발하라.” 마치 야훼께서 “좋아, 욥, 하루만 신이 되어 보아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냈다고 생각하니? 글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자.” 12절, “교만하여 자기를 낮추는 모든 자를 보라 악인을 그 서 있는 곳에서 꺾으라” 그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기반으로 합니까? 그는 “실제로 해낼 수 있다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두 생물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그는 자신의 의, 욥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근거로 여기는 욥을 질책했습니다. 그는 수사적으로 세상에 정의를 부과하는 욥의 능력에 도전합니다. 욥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보응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에 공의를 세우라고 도전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정체 [4:37-5:44]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언급하기 위해 베히모스와 리바이어던이라는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알려진 자연 종이 아니며 현재 멸종된

종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생물들의 특징을 조사해보면 정말 분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Leviathan에서 생물학적 또는 멸종된 종과 비교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는 불을 내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생물에 대해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곳을 봐야 합니다.

혼돈 생물 [5:44-11:07]

나는 그들이 혼돈의 생물이라고 제안합니다. 혼돈 생물은 고대 근동에서 잘 알려진 범주이며 고대 청동이 매우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돈의 생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Leviathan은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Ugaritic 텍스트에서도 알려진 카오스 생물입니다.

카오스 크리처는 질서 정연한 세계의 변방에 거의 한 발, 한 발 밖에 없는 경계 생물입니다. 그들은 알려진 동물과 추상적 특성을 공유하는 전형적인 생물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베히모스에서 하마의 유사성 또는 리바이어던에서 악어의 유사성을 보았다는 생각은 하마나 악어가 일종의 베헤모스 또는 리바이어던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는 데까지만 이릅니다. Behemoth가 실제로 하마이거나 Leviathan이 실제로 악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입니다.

혼돈 생물의 범주는 내가 말했듯이 코요테, 부엉이, 타조 또는 하이에나와 같이 경계 생물 뿐만 아니라 상상의 눈에서만 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이 혼돈 생물 범주에 속합니다. 후자의 그룹인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은 엄격하게 동물학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종종 합성 생물입니다. 그래서 사자 머리, 독수리 날개, 그리핀이나 스팅크스 같은 생물. 따라서 혼돈 생물은 종종 합성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돈의 피조물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히 창세기 1장, 거대한 바다 생물들과 1:21에서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원 밖의 덜 질서 있는 영역에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처럼 비질서가 계속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무질서의 증거이지만 부분적으로 질서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리워야단을 놀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21에서 바다를 향해하는 거대한 피조물이 언급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입니다. 사실, 창세기가 돌아와서 " *b* *ara*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처음으로 바다 괴물에 붙일 목적으로 " *bara*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체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반우주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우주에 대항하는 일이지만 엄격하게 비질서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질서 있는 세계의 일부이지만 생각 없는 본성 덕분에 비질서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카오스 피조물은 도덕적으로 사악하지는 않지만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토네이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토네이도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오스 피조물은 신의 적이 아니지만 인간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다가 무질서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생물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Behemoth는 실제로 "cattle"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육지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일종의 육지 동물의 추상화입니다. Leviathan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다 생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것들을 혼돈 생물체를 특징짓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하마와 악어는 확실히 위험하며, 이들과 같은 카오스 생물의 산란 또는 하수인으로 느슨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학적 인물로서의 베헤못과 리바이어던의 역할 [11:07-12:06]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피조물의 정체성이 책 속의 인물로서 그들의 문학적 역할을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대

청중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연결된 정체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베헤못과 리바이어던은 책의 저자에 의해 캐릭터, 책에서 역할과 목적이 있는 문학적 캐릭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문자를 사용하여 책의 권위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정체성의 논쟁을 넘어서 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욥의 다른 곳에 있는 혼돈 생물[12:06-14:08]

카오스 생물은 책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3장에 있는 욥의 탄식은 3장 8절에서 리워야단을 맡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대해 말했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응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혼돈의 피조물로 취급하시는지 물었습니다. 7시 12분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타님(tannim)*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돈의 피조물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부분적으로 길들여진 혼돈 생물체를 목줄에 묶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30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서 하나님 자신이 혼돈의 피조물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혼돈의 피조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베헤못의 역할을 맡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신은 혼돈의 피조물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Leviathan보다 훨씬 우월하며 그렇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본문에서 Behemoth와 Leviathan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이 혼돈의 피조물처럼 행동하신다고 비난했고, 하나님은 “오, 아니, 그보다 더 나쁘다.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히못과 리바이어던을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의 문학적 역할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헤못과 욥 비교 [14:08-16:08]

그래서 우리가 40장 15절을 열 때 하나님은 욥의 주의를 베헤못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Behemoth를 봐”라고 말한 다음 다음 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베히모스를 보아라.” 욥과 베히모스는 함께 그룹화됩니다. 하나님은 둘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헤못을 다루는 짧은 부분을 살펴볼 때 24절, 즉 15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5절에서 베헤못은 욥처럼 만족하고 배불리 먹습니다. 15가 비교를 도입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헤못은 욥처럼 만족하고 잘 먹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은 베히못을 욥처럼 강하게 하셨습니다.

40절 19절에서 베헤못은 욥과 같이 그 종류 중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것은 15 :7 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20절에서 베헤못은 욥처럼 보살핌을 받습니다.

40장 21-22절에서 베헤못은 욥처럼 보호를 받습니다. 23에서 이제 Behemoth 섹션의 끝인 23과 24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23에서 Behemoth는 격렬한 강에 놀라지 않습니다. 추론이나 함축이 더 중요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신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신뢰하고 안전합니다. 그는 잡히거나 갇힐 수 없으며, 당신도 상처를 입지 않고 저항해야 합니다. 24절은 “누가 능히 그것의 눈을 잡으며 그것의 코를 꿰뚫을 수 있느냐” 고 말합니다. “코”라는 단어는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 뚫지 못하며 ” 이것은 본문에서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명명된” 또는 “지정된” 또는 “침투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무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헤못은 욥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로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베헤못에 대해 읽은 모든 내용을 욥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섹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욥은 베헤못과 같아야 합니다. 욥이 “당신은 나를 혼돈의 피조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불평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연설은 “글쎄요, 이 점에서 당신은 조금 더 혼돈의 생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와 리워야단보다 크시다 [16:08-22:44]

리바이어던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긴 섹션,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 다시 주목합니다. 처음 여덟 구절은 2인칭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2인칭 형식이다. 욥이 리바이어던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약간의 생각으로, 나는 아이디어의 조금 이상을 생각합니다. 리바이어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 낚시 바늘로 끌어당기고, 혀를 묶고, 코드를 코에 꽂으세요 . 자비를 구걸할까요? 당신에게 온화할까요? 당신은 그것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의 애완 동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리바이어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왜 여호와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그를 함정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의 혀를 집어넣고, 그와 계약을 맺고, 그를 길들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으로의 전환은 Leviathan이 야훼와 비교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41:3, “그것이 계속 너에게 자비를 구하겠느냐?” 그것이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사납게 할 자가 없나니 누가 능히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내게 값을 청구가 있으리이까” 야훼 자신이 자신과 리워야단 사이의 연결을 그립니다. 그가 리바이어던과 같다고 보다는 리바이어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리워야단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면, 세상에서 왜 야훼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통역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리워야단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가 리워야단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종류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41장에서 이 정보를 살펴보면서 Leviathan은 제어할 수 없으며 Yahweh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Leviathan은 복종하거나 자비를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훼도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리바이어던은 상처를 입거나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맞서 싸우는 것은 가망이 없다. 야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과 11에서 완전한 비교를 읽었습니다. 당신을 포함하여 아무도 나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욥. 12에서 18까지는 고삐를 받기 위해 강제로 입을 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까? 욥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는 야훼를 이용하고 굴레를 씌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야훼는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에서 25까지, 리워야단은 화를 내면 위험하며 야훼도 그러하다. 26에서 32까지, Leviathan은 야훼와 마찬가지로 무적입니다. 33절, 어떤 피조물도 그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욥이 야훼와 동등할 뿐 아니라 리워야단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 리워야단은 모든 교만한 자를 지배합니다.

이것을 11-14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연설의 서두와 비교해 보십시오 . 교만한 모든 자를 지배하는 것은 리바이어던입니다. 욥은 40장 11절과 12절로 돌아가서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을 굴복시킬 수도 없습니다(41:34) .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또한 교만한 자의 왕이십니다. 그는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이 리워야단에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욥이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그가 야훼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배워야 할 것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의 메시지에서 카오스 생물의 역할[22:44-24:19]

따라서 이 책의 메시지에서 이들 피조물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우주적 악의 화신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한 해석자는 심지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챌린저와 동일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의 완전히 반대라고 본다. 두 생물 모두 악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어느 생물도 도전자 *하사탄을 나타내지 않으며* , 초기 장에서 도전자의 역할이나 위치를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질서에 대한 위협을 진압하고 우주적 정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우주적 정의는 저울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야훼께서 하신 일의 결과도 아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우주 전체나 인간의 경험에 공의를 가져오신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책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이 보응의 원칙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주장입니다.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24:19-24:52]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은 욥이 어떻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연설은 욥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야훼는 어떤 말로도 욥의 의로움이나 그 자신의 정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훼의 절정의 연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명백한 메시지에 가장 가까운 것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베흐모스처럼 신뢰해야 한다 [24:52-25:47]

Behemoth에 관한 요점은 급증하는 물에서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히모스는 의롭지 않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베히모스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리바이어던은 도전할 수 없습니다. 야훼는 그들을 패배시키거나 그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삽화로 사용됩니다.

인간은 이 문학적 프레젠테이션에서 Behemoth가 하는 것처럼 안전과 신뢰를 가지고 성난 강물에 대응해야 합니다.

인간은 야훼보다 열등한 리워야단을 도전하거나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야훼를 길들이거나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리바이어던이나 신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욥의 반응 [25:47-27:10]

42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욥의 두 번째 대답은 그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요점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당신의 어떤 계획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욥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를 길들이거나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물었느니라 지식도 없이 내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계획이 공의에 따라 우주를 다스리는 보응의 원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합니다. 지식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일과 너무 놀라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Wonderful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급여 등급을 넘어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업 취소 및 제출 [27:10-30:47]

“네가 말하되 이제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네게 물으리니 대답하리라’ 내 귀가 주를 들었더니 이제 내 눈이 주를 보았 으므로 내가 나를 멸시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주제넘었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철회하고 제출합니다. 이것은 그가 방금 말한 첫 번째 응답과는 다릅니다. 그는 철회하고 제출합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너무 놀라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내가 몰랐던 것들입니다. 히브리어 *펠레*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성한 영역의 정보를 가리킵니다.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 그것에 대해 조금 말해 봅시다.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Niphal 형태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다른 단어들과 구별됩니다. 엘리바스는 그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행동을 바꾸다라는 뜻의 *shuv* 라는 단어였습니다 . 여기서 옳은 행동 변화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진술을 철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출애굽기 32:14, 예레미야 4:

28, 예레미야 18:10, 요엘 2:13, 요나 3:10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언어 형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 다룰 수 없는 모든 흥미로운 구절들입니다.

그 사건의 대부분은 후회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욥의 진술에서 그는 이전 진술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특성화는 자신의 이해력에 대한 주제넘은 믿음과 오만한 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욥의 후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의 진술은 다른 문제도 열어줍니다. 여기서와 같이 전치사 'al' 과 함께 사용 하면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재고하거나 더 자주 마음에서 잊게 만들거나 모든 것을 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것이 그가 그의 마음에서 꺼낸 어떤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지와 재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al . 그래서 그는 이 먼지와 재를 마음에서 치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전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먼지와 재에 대한 모든 것을 재고하고 먼지와 재를 마음에서 제거합니다. 따라서 그는 애도의 끝을 선언했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베히못과 리워야단의 중요성 [30:47-31:29]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이 책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마와 악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화나 그런 종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혼돈 생물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 생물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고 그것이 옘과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그리고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은 John Walton과 옘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하나님의 말씀 2, 베헤못과 리워야단, 옘의 응답, 옘기 40:6-41:34입니다. [3 1:29]